

제5강 안티 오이디푸스, 또는 분열분석이란 무엇인가? 욕망과 섹슈얼리티의 지도그리기

최 진 석

1.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1960년대 중반의 캐나다. 브루스라는 아이는 출생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자신의 남성기를 상실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남성적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란 ‘선고’에 부모들은 절망했고, 섹슈얼리티는 환경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란 주장을 접하자 희망을 느꼈다. 브렌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브루스는 철저하게 여자아이로 길러졌다. 예쁜 옷과 장신구들, ‘여성스러움’에 대한 부모와 주변의 강박적인 조언과 환경 조성 등이 뒤따랐다. 적어도 브렌다가 아직 어려서 성적 분별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지낼 때는 제법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까지도 심어주었던 듯싶다. 그 사이에 머니 박사는 브렌다의 사례를 학계에 발표해 성적 정체성이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에 좌우된다는 보고를 해서 명성을 떨쳤다(유전적 성향은 소량 인정되었다). 1년에 몇 차례 머니 박사를 만나러 론과 재닛은 아이들을 데리고 볼티모어로 떠났으며, 거기서 두 아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철저한 비교 검진을 받고 머니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소재들을 제공해 주었다.

문제는 브렌다가 커가면서 주변이 기대하는 대로 여성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머니가 하는 검사를 약삭빠르게 ‘벗어나는’ 법을 터득한 브렌다는 학계의 정식 보고에서는 성 전환 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례로 회자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그녀는 인형 놀이보다는 전쟁놀이를 즐기는 ‘남성적’ 성향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사춘기에 이르기 전까지 아직 정상적인 여성 생식기 조형술을 받지 않은 데다 여성 호르몬 투약을 갓 받기 시작했던 브렌다는 남들이 의식하기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미묘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신과 의사들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브렌다가 어릴 적에 자신의 남근을 어머니에게 상실당한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브렌다의 상태에 대한 세상의 의혹도 점차 커져갔다. 유전자 결정론을 믿던 또다른 의사 밀턴 다이아몬드는 집요하게 브렌다의 상황을 캐물어 머니와 견원지간이 되었다. 실제로 머니는 최초의 자료를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었고, 성 정체성 형성에 대한 논쟁에서 브렌다의 사례가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면서 사태의 현재를 확인하려는 방송사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들은 곧 여성성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브렌다를 발견했으며, 1970년대 말부터 머니는 그(녀)에 대한 언급을 공식석상에서 그만 두어야 했다. 결국 오랫동안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했던 브렌다는 결국 어린 시절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1981년부터 몇 차례 힘겨운 수술을 거푸 받으면서 서까지 남성으로 ‘되돌아’ 갔다.

2.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관계

강사의 요약과 설명.

3. 프로이트와 라캉 — 성감대의 조형과 성적 욕망의 발생

- 프로이트의 성이론과 리비도 경제
- 성감대의 형성과 리비도 에너지론
- 정신형성의 논리와 리비도의 관계
- 라캉과 거울단계의 이론
- ‘온전한’ 인간의 신체와 정신, 부분과 전체

4. 오이디푸스의 명령 — 남자 또는 여자가 되어라!

- 남성의 욕망, 여성의 욕망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무엇인가?
- ‘성적 인간’ 탄생의 비밀
- 거세의 공포와 오이디푸스화
- 여성성은 남성성의 이면인가?

5. 들뢰즈와 가타리 — 욕망이란 무엇인가?

탈인간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실마리는,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실상 라캉으로부터 이미 유래하고 있다(물론 그 짝은 프로이트 자신에게서도 발견된다). 그것은 부분충동에 대한 라캉의 발견으로서 욕망하는 기계와 기관없는 신체의 논의와 긴밀히 연결되는 개념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럼 부분충동이란 무엇인가? 부분충동은 실체가 아니다. 즉 기관으로서 드러나지 않으며, 항상 운동과 그 운동의 도착지라는 대상 사이에서 표명된다. 이는 욕망의 운동에 비교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부분충동은 욕망이 일의적인 전체성을 띠지 않고 역으로 파편화되어 분산적인 형태로만 작동하고 현행화될 때 드러나는 무엇이다.

잘 알려져 있듯, 욕망은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다양한 충동들이 합쳐지지 않듯, 욕망 역시 다양한 대상들을 부유하며 결코 채워질 수 없다. 『안티 오이디푸스』에 따르면 욕망은 부분충동처럼 상이한 방식으로 소비되며, 다양한 욕망들이 서로 접속하고 소비되는 효과를 통해 주체라는 결과를 생산할 따름이다(소비의 접속적 종합). 우리는 욕망(리비도)들이 마주치고 결합하고 분리되는 그 결과로서 ‘나’, ‘너’, ‘우리’, ‘그들’의 효과들을 만나지만 실제로 욕망은 성(性)도 없고 주체도 없으며 목적도 없는 과정이다.

6. 섹슈얼리티의 지도는 어떤 것인가?

들뢰즈와 가타리가 ‘횡단성’을 강조할 때의 정확한 의미는 다양한 욕망들이 병렬적이며 무인과적으로 만나 산출하는 관계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는 성적 주체성으로서 남성이나 여성은 단일한 욕망 또는 욕망들의 단일한 집합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욕망들이 뒤섞이고 혼합되고 분열된 각각의 국면에서의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들뢰즈와 가타리의 ‘과정으로서의 분열증’이 함축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정이다. 그런데 과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과정의 표현이 결코 재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분열분석은 분열의 과정을 다시 제시하는 게 아니다. 물론 설명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반복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복은 동일한 것을 ‘복원’한다는 게 아니다. 반복을 통해 드러나는 차이는 필연적이다. 이 차이는 다시 두 갈래로 시간화된다. 하나는 과거의 차이가 빚어내는 계열을 그려보는 것. 『천의 고원』에는 이러한 차이의 계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관한 생생한 실례가 전시되어 있다.

7. 분열분석적 지도그리기

문제는 소급이 아니라 순환이다. 물론 동어반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순환은 0과 1의 양극 사이에서 유동하지만 그것은 정체성의 두 극이 아니라, 힘의 온전한 충전과 벡터화의 침점 사이의 흐름이다. 무의식은 이러한 힘의 순환을 통해 꾸준히 자신을 재생산하고, 이러한 순환에서 무의식이 실존하는 한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의 질문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사회적’이라 지칭되는 무의식의 벡터-장에서 개체와 집단들의 결절점(기관)은 비로소 등장하고 명명된다. 가족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되는 것이다.

분열증적 극은 탈주선을 따른다. 그것은 벽을 돌파하고 흐름을 통과시키고, 다양한 소수적 흐름들을 기계적으로 융합하거나 해체시킨다. 인물들의 침점은 여기서 무화되고, 단지 부분 대상으로서 그러한 침점들이 드러나지만, 그것은 무수히 많다.

니체가 말하듯 ‘긍정’이란 운명애(amor fati)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운명이란 무의식의 흐름, 욕망의 탈구적 생성이다. 듣기 좋은 말이지 않은가? 아니다. 당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흐름과 탈구적 생성은 자연사적이며 그런 점에서 객관적이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힘이다. 마치 유물론자의 신처럼 그것은 작동한다. 분열분석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희구하는 삶을 창조하는 낙관의 구호가 아니다. 다만 우리와 무관하게 항상 이미 작동하는 힘의 유동에 최대한 가깝게 따라가며, 그것을 흉내내려는 일이다. 지도 없는 길찾기이자 모델 없는 조형작업. 정답은 없다. 그러니 다만 행하고 즐기라.